

# '자꾸 생각나는 맛' 나주밥상 지정업소 더 늘어난다

### 나주시, 올 20곳 추가 선정 소비자 만족도 설문에선 재방문 "매우 그렇다" 71%

한번 맛본 후 자꾸 생각나서 또 찾고 싶은 식당, 맛·친절·위생 모두를 갖춘 '나주밥상' 지정업소가 나주를 찾는 미식가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하고 있다.

나주밥상은 나주시가 음식을 통한 관광 활성화를 위해 추진 중인 역점사업으로 올해 시행 2년 차를 맞은 가운데 순항하고 있다.

14일 나주시에 따르면 지난해 첫 나주밥상 지정업소 21곳에 대한 지원사업을 마무리하고 올해 20곳을 추가로 선정한다.

나주밥상 업소로 지정받기 위해선 먼저 '맛·위생·서비스·가격' 분야에서 엄격한 심사를 통과해야 한다.

또 '건강·안심·배려' 3대 실천 서약을 통한 지역 음식문화 개선에 앞장서야 한다.

나주시는 지난해 처음으로 지정한 음식점 21곳에 나주밥상 지정표지판을 비롯해 앞치마·수저받침대 등 물품을 지원하고, 컨설팅·경영 마인드·서비스교육·SNS홍보 등 보조사업 추진을 통해 업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나주밥상 업소를 방문한食客들의 만족도 또한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지정업소 21곳에 대한 고객 설문 결과 '신뢰도', '재방문', '다른 사람에게 추천 의사' 등의 문항에 응답자의 71.3%가 '매우 그렇다'고 긍정적으로 답했다.

이 같은 결과에 나주시 관계자는 "무엇보다 나주시가 맛과 위생, 친절을 공인하는 지정업소로서 이용객들의 만족도가 높았던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이 관계자는 엄격한 기준이 적용된 나주밥상을 통해 더 친절하고 맛있는 식문화가 확산할 것으로 기대했다.

나주밥상 지정업소는 나주시가 총 100곳 지정 목표로 속도를 내기보다는 내실을 기하는 데 온 힘을 쏟고 있다.

윤병태 나주시장은 "오직 나주에서만 향유



윤병태 나주시장이 원도심 한 식당에 '나주밥상 지정업소' 지정패를 전달하고 있다. (사진=나주시 제공)

할 수 있는 고급 식문화 창출과 브랜드 이미지 확산에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또 찾고 싶은 식당, 또 먹고 싶은 나주의 맛이 지역 경제와 관광 활성화의 마중물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나주=기동취재본부

### 장성군, 지역 내 600가구 고효율 조명(LED) 보급 저소득가구 대상...27일까지 신청

장성군이 고효율 조명 주택보급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대상은 형광·백열등을 사용 중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권자 △차상위 가구 등 저소득 주민이다. 군은 600가구를 선정해 기존 형광·백열등을 'LED(엘이디) 조명'으로 교체해 준다.

'LED 조명'은 형광등이나 백열등보다 수명이 10배 이상 길고 전력소비량은 30~50% 가량 낮다. 전기요금 절감은 물론 유지관리 비용도 아낄 수 있어 대다수의 조명장치에 폭넓게 사용된다.

김한중 장성군수는 "고효율에 밝기까지 뛰어난 주민 만족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앞으로도 저소득 가구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꾸준히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장성=김수권기자



## 곡성군, 설맞이 따뜻한 환영 행사 열어

### 설맞이 귀성객 환영행사와 귀농귀촌 홍보

곡성군은 9일 곡성역에서 설을 맞아 고향을 방문하는 귀성객을 대상으로 환영행사와 함께 군정 홍보활동을 펼쳤다고 전했다.

곡성군 귀농귀촌협의회 회원들을 포함한 약 50여 명이 참여한 이번 행사는 귀농귀촌 지원 정책, 고향사랑기부제, 곡성물, 문화관광 정보가 담긴 안내물과 따뜻한 차를 제공함으로써 귀성객들에게 고향의 따스함을 전달했다.

군 관계자는 "매년 명절 때마다 귀농귀촌인들이 곡성군의 일원으로서 군정 홍보에 참여해 서로 소통하고 화합하는 분위기가 조성돼 지역사회가 더욱 활기차고 에너지 넘치는 곳

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곡성군 귀농귀촌협의회는 이미 정착한 귀농귀촌인들이 새로운 이주민의 농촌 정착을 돕는 역할을 하고 있으며, 귀농인의 집 운영, 농촌 체험, 귀농체력교육, 집들이 등 총 14개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이주민들의 성공적인 정착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마을 노후 우체통 교체 등 재능기부 프로그램을 통한 봉사활동으로 지역사회에 기여하며 주민들로부터 호평을 받고 있다.

곡성=양혜영기자

## 화순군 결혼장려금 1차분 신청 기한 만료 임박

### 조건 충족 부부, 기한 내 신청 당부

화순군은 14일 혼인 신고 1년 후부터 1,000만 원을 지원하는 결혼장려금의 조건을 충족하는 부부들에게 기한 내 신청을 당부했다.

지원 대상은 조례 시행일인 2020년 3월 10일 이후 화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혼인 신고한 부부이며, 부부 중 1명 이상이 초혼이어야 한다. 혼인 신고일 기준 부부 모두 화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여야 하며, 혼인 신고 당일 전입 신고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다.

화순군 결혼장려금 1,000만 원은 전국 최대

이며, 혼인 신고 1년 후부터 5년 동안 매년 200만 원씩 분할 지급된다. 신청 기한은 신청 가능일부터 36개월까지이다.

예를 들어 화순군 결혼장려금이 시행된 2020년 3월 10일 혼인 신고한 부부의 1차분 신청 기한은 2021년 3월 10일부터 2024년 3월 9일까지이다.

화순군 결혼장려금을 아직 신청하지 않은 경우 지원 조건을 충족하는 부부들은 신청 기한을 확인하고, 기한 내에 관할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화순=박순철기자

### 구례군 상반기 인재 육성 장학금 3월8일까지 접수 2년 이상 거주 만 30세 미만 학생

구례군은 지역사회를 이끌어갈 인재 양성을 위해 2024년도 상반기 군 인재 육성 장학생을 선발한다.

장학금 신청 대상은 신청일 현재 본인이나 보호자가 구례군에 주소를 두고 2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만 30세 미만의 학생이며, 신청 기간은 3월 8일까지이다.

대학생은 재학증명서, 성적증명서 등 구비서류를 갖춰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신청하고, 초·중학생은 교육장이, 고등학생은 학교장이 장학생을 추천한다.

군은 3월 말 군 인재 육성 기금 심의회를 거쳐 대학생 29명(각 200만 원), 고등학생 45명(각 100만 원), 중학생 30명(각 30만 원), 초등학생 20명(각 20만 원)에게 장학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김순호 군수는 "군에서 지원하는 인재 육성 장학금이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학생들에게 공부에 전념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며, "구례군을 이끌어 나갈 핵심 인재가 될 학생들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장학생 선발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구례군 누리집(www.gurye.go.kr)을 참고하거나 평생교육과(061-780-2626)에 문의하면 된다.

구례=박진호기자

## 담양군, 공장 화재보험료 지원사업 시행

담양군이 작년 이어 올해에도 공장 화재보험료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군은 기업들의 화재로 인한 재산 피해, 배상 책임 등의 부담 경감과 경영안정을 위해 지난해 2억 3천만 원을 투자하여 138개 기업에 화재보험료를 지원했다.

지원 대상은 담양군 관내에 사업장을 두고 적합하게 등록이 된 공장을 운영하는 기업체이며, 대상 보험은 2024년에 가입 유지 중인 화재보험으로 업체당 1개 보험에 한정한다.

지원 금액은 공장 화재보험료의 최대 50%, 500만 원까지 지원되며 금액대별 지원율이 차등 적용된다.

군 관계자는 "화재보험료 지원사업은 기업의 화재로 인한 경영 피해 방지에 큰 도움이 됐다는 평가를 받았다"며 "앞으로도 기업의 안정적인 경영활동을 위한 사업 발굴을 위해 노력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담양=박종영기자



# 거리두기에도 기업시민은 '함께'합니다

서로 거리를 두고  
각자의 자리를 지켜야만 하는 힘든 시간이지만  
**포스코그룹**은  
더 나은 내일을 위해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떨어져 있어도 마음만은 가깝게  
늘 '함께'하고 싶은 기업이 되겠습니다

※ 포스코그룹 임직원이 직접 모델로 참여해 촬영했습니다

- POSCO 포스코인터내셔널 포스코건설 포스코케미칼 포스코에너지 포스코ICT 포스코광판
- 포스코SPS 포스코엔텍 포스코O&M 포스코기술투자 포스코티미날 포스코A&C